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16번째 편지

**수요기도회의 3개 기도제목은 우리 교회의 현실
교회 건물 팔려고 한다., 은행이 돈 안준다, 교회 유지 안된다.**

지난 3월 9일 수요기도회 시간에 구자민 목사님은 몇 개의 기도제목을 선정, 참석한 교인들에게 “주 여--, 주 여--, 주 여--” 삼창을 한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들 기도 제목 중에는 1), 우리 교회 건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은행장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우리 교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등 3가지 기도제목이 포함 돼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기도 제목이 무슨 뜻인지 또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도는 절박한 우리 교회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기도 제목의 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기도 제목을 거꾸로 표현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교회 건물 팔려고 부동산시장에 내 놓았다” 소문 파다
타운내 H 마켓서 사들여 대형마켓 만들려 추진**

첫째 기도제목의 의미는 우리 교회 건물을 팔려고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5명의 장로들이 부동산 시장에 내 놔다는 얘기입니다. 40 여 년 동안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쌓아 온 하나님의 교회, 즉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른 교회에게 특히 잘못하면 교회도 아닌 엉뚱한 이름의 건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자민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제발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 한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한인 사회에서는 동양선교교회를 팔려고 부동산 시장에 내 놓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강준민 목사가 우리교회 건물을 산다더라”는 루머는 오래 전부터 들려왔었는데 얼마 전에는 그렌데일의 한 교회의 당회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말썽 많은 교회 건물을 왜 사느냐”로 결론을 내려 중단했다는 구체적인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말로 리스가 끝나는 한인타운의 대형마켓 중의 하나인 H마켓이

우리 교회 본당건물을 구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한인사회 부동산 업계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본당은 애초에 랄프마켓 건물이었기 때문에 대형마켓으로 오픈하면 속된 말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매달 10여만 달러이상 적자, 재정파탄 일보직전 변호사비 10여만 달러 지급, 또 새 변호사 고용

이 같은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이 두번째 기도제목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매달 10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비로 100여 만 달러 이상을 허비했고 거기에다 수십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드리는 바람에 교회 재정이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다 흥민기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데만 10여만 달러를 소비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당회의 처사에 비판적인 교인들을 몰아내려고 “긴급 접근금지명령”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을 벌였으나 번번이 패소 당하자 고용했던 데이빗 김 변호사를 그만 두게 하면서 거의 10여 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손 변호사를 그 자리에 두고 법적인 문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필요하며 소송이 필요합니까? 그 돈을 당회원들이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생활, 어려운 비즈니스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바친 그 헌금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한 노수정 장로에게 아파트공사 맡겨 노장로 교회돈 빼돌리다 여러번 들통 경력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어려운 판국에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은 이미 은퇴한 노수정 장로에게 멀쩡한 아파트 수리 공사를 맡겨 몇 만 달러를 쓰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수정 장로는 초창기 우리 교회의 자동차 수리와 교회 수리 등에서 수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특히 제2 주차장의 흙을 퍼낼 때 유령회사를 만들고 트럭 수를 늘려서 부당하게 교회 돈을 받아 갔다가 책계싱하는 현장에서 적발돼 이를 적발했던 교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일은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명의 소위 시무 장로들은 교회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이 사실을 모르고 노수정 장로에게 이 같은 일을 맡겼겠지만 이를 잘 아는 교인들은 “여우에게 고기를 지키도록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이 때문에 강준민목사가 남기고 간 150여만 달러를 탕진하고도 빚더미 속에 앉아 있는데다가 하는 일 마다 희망 없는 일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은행들, 빚더미 동양선교교회에 한 푼도 줄수 없다

은행이 왜 이런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은행은 돈 장사입니다. 당사자인 우리보다도 은행들은 더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한인 은행들의 태도입니다. 구

자민 목사님은 이런 현실을 알고 “은행장들의 마음을 돌리게 해 달라”고 기도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헌금 줄어 각 기관 봉사자 봉급도 못주고
선교헌금 단 한 푼도 선교지에 못 보내**

3번째 기도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헌금은 줄어드는데 안 해도 되는 소송을 벌이면서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하고 쓸데없는 아파트 수리 등으로 그나마 헌금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매주 3천 달러 이상의 선교헌금이 바쳐지고 있는데 단 한 푼도 선교지에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곳에다 때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한 각 기관의 봉사자들의 봉급은 벌써 몇 달째 밀려있고 주일학교 등의 지원비도 거의 한 푼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기료를 낼 수가 없어 예배가 없는 날, 오후 6시가 넘으면 교회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 자민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유지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교인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OMC 새소망을 위한 헌금에 동참합니다

교회회복 특별헌금

성 명 _____

교인번호 _____

직 분 _____

OMC 회복을 위해 일시불로 합니다

일시불 헌금액수 \$ _____

약정 헌금액

\$10,000 \$5,000

\$3,000 \$2,000

\$1,000 \$500

\$250 \$100

기 타: \$ _____

해당란에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헌금액수 \$ _____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20-21)

▲ 지난 13일 주일날 주보와 함께 나눠준 헌금봉투의 앞면. 교회회복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회회복 특별헌금, 비 성서적인 이단 수법 하용조목사 도용, 헌금강요 영상 문제될 듯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주일인 3월 13일 주일에 교인들에게 주보에 넣어 나눠준 소위 “교회 회복 특별 헌금”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이름의 헌금 봉투입니다. 이 헌금봉투를 나눠주면서 언제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없는 서울 온누리 교회 하용조목사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하목사가 강요하는 듯 꾸며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교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요, 기만입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회복 특별 헌금”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대로 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며 따라서 교회로 회복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헌금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논리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이름의 헌금이 강요된 일이 없습니다.

교회 회복은 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길

예수님도 성령 강조, 루터도 성령 대집회 한국교단도 대각성집회 통해 성령받아 성장

우리 교회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5명의 장로들이 운영하는 당회는 지금 이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비 성서적이며 이단적입니다. 교회 회복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복은 돈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림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즉 교회를 회복시킬 때 처음 시작한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대 집회였습니다. 그가 성령을 갈망했던 교회, 그리고 불길 같은 성령이 강림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했던 그 현장은 하이델베르그에 “성령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성지순례의 한 코스가 돼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기틀을 다졌던 평양에서 열렸던 대 각성 집회도 바로 성령강림이었습니다. 그 때 내렸던 불길 같은 성령님의 충만 하심으로 한국 기독교 성장의 발판을 이뤘으며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날 한국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 교회의 회복은 돈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입니다. 장로들이 주장한 “교회 회복 특별 헌금”은 당연히 취소돼야 합니다. 이단의 집단들이 돈을 충당하기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똑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헌금은 당회가 탕진한 돈 메꾸기 위한 강요.
시무장로들은 원로장로들의 중재안 받아들여라**

처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로들이 바라는 헌금은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그들이 탕진한 돈을 매꾸기 위한 것이며 이를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회복은 서로 대립돼있는 양측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 전 교인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들 몇 분이 중재안을 만들어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 당회원들에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으나 당회는 자신들만의 주장을 되풀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원로장로님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들은 이번 중재를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정통회 회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당회원들이 화합하지 않고 분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됐으며 더구나 당회원들에게 화합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서글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당연히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틈만나면 강조해 온 당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로장로님들에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내용이건 타협하겠으며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타협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동양선교교회 교인 여러분!

교회 회복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복 특별 헌금”은 오히려 우리 교회를 비정상적으로 돌려 놓는 이단적인 헌금 강요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지 않는 철저한 회개와 서로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려오시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참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명의 당회원 장로들의 우리 교회 회복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화합의 장을 펴나가도록 5명의 장로와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충언을 합시다.

동양선교교회 회복을 위한 서로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공의로운 타협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누가 이 명령을 거역한단 말입니까?

동양선교교회 회복 대책위원회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비상대책 특별기도회를 갖고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월드미션 신학교 대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와서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입니다.

열정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능력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매주일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흥회에 온것 같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기도회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찾아 오시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website [www.klifeusa.com](http://klifeusa.com). The header features a cityscape background with the text "코리아 라이프 Korean Life" and the URL.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HOME, 뉴스/인문/역사, 칼럼, 건강생활, 종교생활, 문예마당, and 동양선교교회 자유게시판. The main content area has a heading in Korean: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A website for Oriental Mission Church members has been prepared). The text below explains that users can visit the website to find news and articles, and that there is a section for literary activities called "문예마당" (Literary Market). It encourages members to contribute articles and comments. The website URL www.klifeusa.com is provided at the end.